

‘이차전지 특화단지’ 발판 삼아 우주·방위산업 육성

순천시, 광양만권 소재·제조 역량·우주·방산 결합 순훈모 시장 “남해안권 미래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가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에 계기로 광양만권의 이차전지·첨단소재 산업을 순천의 우주·방위산업과 연결해 미래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에 나선다.

18일 순천시에 따르면 올촌산단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입주해 있고, 올촌제1산업단지도 2024년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돼 정밀가공·주조·용접 등 방산 제

조 기반과 연계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

지난 9월 30일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으로 이차전지 소재·부품 산업을 우주·항공·방산 분야까지 확장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됐다.

이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은 순천·여수·광양이 각 지역의 산업기반과 강점을 연계해 추진해 온 광양만권 경제협력의

성과라는 점이 있다.

순천의 이차전지 소재·정밀제조 및 우주·방산 산업, 광양의 철강·이차전지 소재 산업, 여수의 석유화학·첨단소재 산업을 연계해 원료와 소재부터 제조·활용까지 이어지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

특화단지 지정에 따라 시는 연구개발, 기업지원, 실증·시험평가, 전문인력 양성 등 관련 국비사업을 발급하고 첨단소재 및 방산기업 유치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특히 포스코리튬솔루션 등 기존 이차전지 소재산업과 지역의 뿌리·정밀제조 역량을 연계해 지역기업의 기술 고도화와 신

규 투자를 유도하고, 이를 우주·항공·방산 분야까지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이차전지와 방위산업은 고성능 전원, 첨단소재, 정밀제조 등 공통된 기술기반을 갖고 있다. 고에너지밀도·고안전 배터리는 드론·로봇·무인체계와 군용 전원장치 등에 활용될 수 있으며, 배터리 소재와 첨단금속·정밀가공 기술 역시 우주·항공·방산 부품으로 확장할 수 있다.

순천의 방위산업 전략은 광양만권이 갖춘 원료·소재부터 배터리 제조·활용까지의 전주기 이차전지 밸류체인에 순천의 방위산업을 접목하는 데 있다. 이를 기반으로 드론·로봇, 우주·항공, 첨단 무기체계

등에 적용되는 고성능·고안전 특수전원산업까지 산업 영역을 확장한다는 구상이다. 기존 파우치형 전기차 배터리에서 각형 ESS와 방산용 특수목적 배터리 등으로 제품군을 다변화하는 것도 순천시의 전략이다.

이에 따라 이차전지 소재·부품에서 첨단소재·정밀가공, 고성능 전원, 무인체계, 우주·방산으로 이어지는 산업 연계 모델을 구축하고, 올촌산단을 이차전지와 우주·방위산업을 연결하는 융합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차전지 소재기업과 뿌리기업의 기술 고도화, 우주·방산 기업과

의 공동 기술개발 및 공급망 진입을 지원하고, 향후 방산·우주용 이차전지와 특수전원 분야의 실증·시험 기반 구축도 검토한다.

순훈모 순천시장장은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에 계기로 광양만권의 첨단소재와 제조기술을 우주·방위산업까지 연결해 지역기업의 새로운 공급망을 만들겠다”며 “이차전지·첨단소재·우주·방산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광양·여수·고흥 등 인근 산업거점과도 연계해 남해안권의 미래 첨단산업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천=박철석 기자 2556pk@gwangnam.co.kr



올촌일반산업단지

여수시민의 날, 섬박람회장서 화합·축제 열기

시민·관람객 5000여명 참여
COP33·공공기관 유치 염원

2026여수세계섬박람회가 열리고 주행사장에서 여수시민들의 화합하는 한마당을 펼쳤다. 행사를 통해 박람회장에 축제 분위기를 더하고, 지역 자긍심과 지역 발전을 염원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는 최근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주행사장에서 열린 ‘2026 여수시민의 날 기념행사’가 시민과 관람객의 참여 속에 마무리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시민 참여’를 최우선 가치로 내세워 시민 화합을 다지고, 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향한 공감대를 확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읍·면·동 주민과 초청 인사, 관람객 등 5000여명이 참석해 여수의 자긍심을 나누고 지역의 미래를 함께 그렸다.

행사는 동 대항 가요제와 웰린지게임, 섬박람회장 보물찾기 등 시민 참여 프로그램으로 시작됐다.



최근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주행사장에서 열린 ‘2026 여수시민의 날 기념행사’에서 27개 읍·면·동의 깃발이 도열하고 있다.

이여 시민예술단과 배울학어린이집 아동들의 공연, 시민현장 நட북, 시민의상수여식 등이 진행되며 시민이 주인공인 축제의 의미를 더했다.

특히 27개 읍·면·동 깃발 도열과 꿈나무 예술인들이 함께한 카운트다운은 지역

공동체의 화합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COP33 유치와 공공기관 유치를 기원하는 퍼포먼스도 펼쳐져 여수의 국제적 위상 강화와 지역 발전을 바라는 시민들의 뜻을 모았다. 섬박람회를 무대로 시민 화합과 미래 비전을 함께 조명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여수시민의 밤’ 행사에서는 시민 참여 퀴즈와 응원 영상, 가수들의 축하 공연이 이어져 축제 분위기를 달궜다. 밤하늘을 수놓는 불꽃쇼가 마지막을 장식하며 시민과 관람객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했다.

시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시민 참여와 지역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고,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시민 공감대를 넓혀갈 계획이다.

서영학 시장은 “여수 발전을 위한 크고 작은 어려움을 이겨내며 걸어온 순간마다 그 중심에는 언제나 시민 여러분이 계셨다”며 “‘시민 속으로, 세계 속으로, 다시 뛰는 여수’라는 시정 구호 아래 시민주권도시 여수의 원칙을 지키며 기반이 튼튼한 여수, 시민의 삶이 더 나아지는 여수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gwangnam.co.kr

곡성, 하수도 기반시설 개선 속도낸다

연반지구 농어촌마을 사업 93억 투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곡성 석곡 연반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의 실시계획비 국비 3억원을 확보해 2027년부터 사업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석곡 연반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석곡면 연반리와 당월리 일원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적정하게 처리해 방류 수질을 개선하고 하천 수계 보전과 주민들의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군은 2027년부터 2029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93억원을 투입해 기존 40t 규모의 마을하수처리장을 40t 증설해 총 80t 규모로 확충하고, 총 연장 약 6.9km의 오수관로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그동안 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지 못한 지역내 미처리 가구의 생활하수 등을 통합 처리해 생활환경 개선과 수질오염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국비 확보로 2027년 1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할 수 있게 됐으며, 군은 설계단계부터 사업의 효율성과 시공성을 면밀히 검토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곡성군은 총사업비 57억원 규모의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재원을 확보해 하수도 시설의 기능을 개선하며 하수관로의 구조적 결함과 누수 등으로 발생될 수 있는 문제를 사전 예방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국비 확보를 통해 연반지구 하수처리 기반을 확충하고 노후 하수관로를 정비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국비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과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환경 개선과 깨끗한 물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곡성=김유변 기자 hnnews1@

김철우 보성군수 “미래 100년, 군민과 약속 완성”

생애주기 맞춤형 복지·교육 등 5대 분야 47개 사업
농어촌 기본소득 안착·남해안 해양관광 거점 조성

“군민과 함께 만들어 온 보성의 변화를 군민의 생활 속에서 완성하고, 보성의 미래 100년을 준비하겠습니다.”

김철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수가 민선 9기 취임 100일을 계기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행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차산업·해양관광 육성 등 군민 생활 안정과 미래 성장 기반 확충에 군정 역량을 집중할 것을 다짐했다.

보성군은 민선 7·8기에 다져온 기반과 추진해 온 주요 사업을 군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연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출범 이후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과 주요 현안 사업의 정부예산안 반영, 공약 실천 계획 수립 등을 통해 군민과의 약속을 실행할 토대를 마련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군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 내 소비를 지원하는 핵심 정책이다. 군은 정부 시범사업 기준액인 월 15만원에 군비 5만원을 더해 지급 요건을 충족한 실거주 군민에게 1인당 월 20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다.

보성을 대표하는 차 산업은 가공시설 현대화를 통해 경쟁력을 높인다. 군은 보성농차가공유통센터의 노후 시설을 개선하고 발차 전용 제조·가공설비를 확충하는 보성발차 가공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양관광 분야에서는 별고갯벌과 여자만·독량만의 생태 자원을 보성의 미래 성장 기반으로 삼는다. 유네스코 세계자연

유산인 별고갯벌을 중심으로 여자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을 추진하고, 율포항 국가어항 지정과 율포해양복합센터 건립 등을 통해 남해안 해양관광 거점으로 도약할 기반을 마련해 나간다.

군민이 안정적으로 살아가 수 있도록 복지와 생활환경 개선도 추진한다. 군은 2027년부터 2030년까지의 복지정책 방향을 담은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했다.

주민의 수요를 반영해 소득·주거 지원과 생애주기 통합돌봄, 일자리, 건강, 교육·문화 분야의 지원을 연계한다.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마련에도 힘을 쏟고 있다. 2027년도 정부예산안에는 보성발차 가공시설 현대화, 율포항 국가어항 지정 관련 용역, 득량면과 별고갯의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등 4개 현안사업의 국비 40억원이 반영됐다.

군은 국회 심의 과정에 적극 대응해 반



김철우 보성군수가 최근 겸백면민의 날 행사장에서 첫 지급을 기념해 주민 대표 47구에 보성사랑상품권 카드 모형을 전달했다.

영 예산이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행정·관광도시 완성과 보성 브랜드 가치 제고 등이다.

민선 9기 공약은 5대 분야 47개 사업으로 최종 확정됐다.

주요 내용은 생애주기 맞춤형 복지·교육, 미래형 농어촌 혁신과 지속 가능한 소득 기반 확충, 정주환경 개선과 균형성장, 청년·지역경제 성장 기반 구축, 체류

형 관광도시 완성과 보성 브랜드 가치 제고 등이다.

군은 분기별 추진 상황 점검과 공약 이행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사업의 이행 과정과 성과를 관리한다. 담당 부서 간 협력을 강화하고 군민 의견을 반영해 공약이 생활 속 변화로 이어지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김철우 군수는 “지난 100일은 군민과의 약속을 실천하고 보성의 다음 도약을 준비하는 시간이었다”며 “농어촌 기본소득이 군민의 일상에 도움이 되고, 보성의 차 문화와 갯벌, 바다가 지역의 소득과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요 사업을 챙기겠다”고 말했다.

보성=임태형 기자 linth66@gwangnam.co.kr